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다음 주 주요 미 경제 지표 발표... PCE, 구매 관리자 지수 등
- Bloomberg: 미 채용공고직 임금 증가...기술 및 금융직 주도

### [미국 금융]

- TheEconomist: 미국 기업들 오히려 고금리에 직면 예상
- Reuters: 연준의 은행 자본 기준 완화안, FDIC의 반발 직면
- Bloomberg: 투자자 전문가, "4.5% 연준 금리가 '뉴 노멀'이 된다"

### [미국 대선]

- Bloomberg: 연준, 선거철에 금리 인하로 정치적 반발 직면

### [뉴욕시]

- Bloomberg: UN 총회로 뉴욕 출퇴근 '악몽' 다가온다

### [에너지]

- Bloomberg: 바이든, 배터리 생산 확대에 30억 달러 투자

###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연료 수출 쿼터 작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TheEconomist: 중국 과잉 생산, 글로벌 철강 산업 흔들어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아마존, '회의를 위한 회의 없앤다'
- Bloomberg: GM 크루즈, 올가을 로보택시 테스트 재개
- WSJ: FedEx, 연간 기업 전망 하향 조정
- CNBC: 연방 자동차 노조, 포드와 Stellantis에서 파업 예고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WSJ: Key Inflation Gauge, Flash PMIs, Micron Earnings: What to Watch Next Week

다음 주 주요 미 경제 지표 발표... PCE, 구매 관리자 지수 등

- 월: S&P Global의 구매 관리자 지수
- 화: S&P CoreLogic Case-Shiller 주택 가격 지수
- 목: 미 GDP 세 번째 추정치, 실업청구수당 건수 및 내구재 지수 (코스트코 실적 발표)
- 금: 연준 선호 지수인 개인소비지출 가격 지수와 개인 소득 지표 등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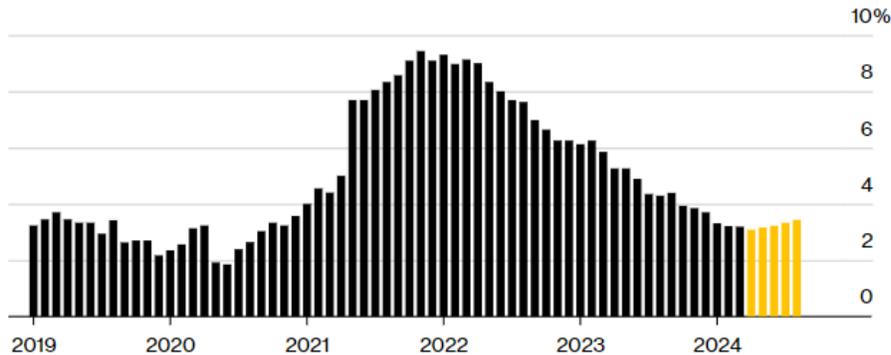
## Bloomberg: Wage Growth Rebounds in US Job Postings, Led by Tech and Finance

미 채용공고직 임금 증가...기술 및 금융직 주도

- 일자리 정보 회사 Indeed가 추적한 결과 미 일자리 공고직의 임금 수준이 과거 2년간 꾸준히 감소하다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와 금융 같은 고소득 직종이 주도했다.
- 이 회사의 추적에 따르면 8월에 공고가 난 직종의 임금 수준이 전월 동기 대비 3.4% 상승했고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한마디로 2년간 임금이 꾸준히 줄어들다가 올해 늦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특히 개발이나 금융 직종 근로자 채용 공고에서 이들 분야의 채용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공고 임금은 상승하고 있다. 물론 중간 및 저소득 직종 임금도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보였다.

### US Wage Growth Re-Accelerates in Indeed Job Openings

Posted salaries rose 3.4% in August from a year earlier



Source: Year-over-year percentage changes in wages/salaries advertised in job postings on Indeed

##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TheEconomist: Strangely, America's companies will soon face higher interest rates****미국 기업들 오히려 고금리에 직면 예상**

- 9월 17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이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급격한 금리 인하가 누군가에게겐 긴축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 보통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든다.
- 그리고 인플레이 감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번엔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기업의 순이자 비용은 35% 감소했다.
- 왜냐하면 첫째, 미국 기업에 현금이 너무 많다. 팬데믹 이후 투자 계획이 보류되면서 2019년 1조1천억달러였던 평균 보유 현금이 2021년 최고치인 2조7천억달러를 기록했다. 둘째, 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 기관의 이자가 오르지 않았다. 2022년 초부터 2023년 중반까지 가산금리는 오히려 1.5%p 하락했다.
- 셋째, 미국 기업들이 이미 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많이 받았기에 급등한 금리의 영향을 덜 받았다. 하지만 이제 고정금리 약정이 만료된다. 현재 추세로 보면 대출 재융자 시 약 6%의 금리가 적용될 것이다.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기업들의 이자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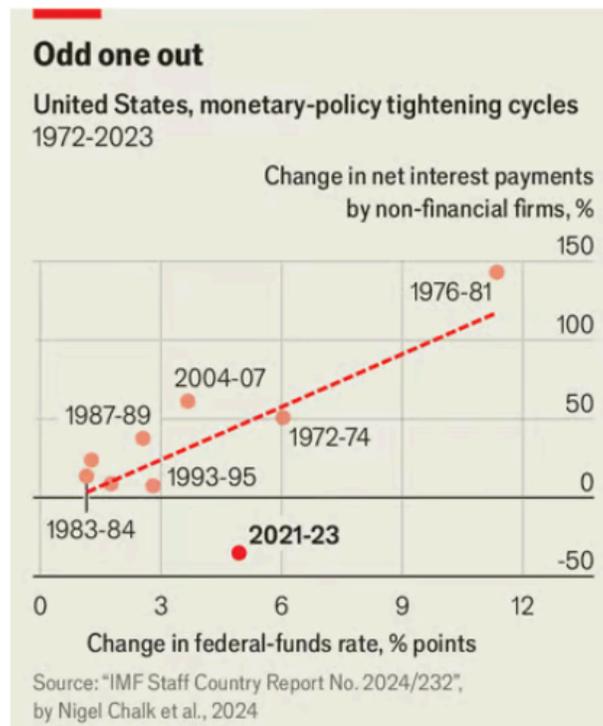


CHART: THE ECONOMIST

## TheEconomist 기사

**Reuters: Fed's relaxed bank-capital plan faces FDIC pushback, Bloomberg News reports**  
**연준의 은행 자본 기준 완화안, FDIC의 반발 직면**

-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은행의 자본 준비금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이 은행감독기관인 FDIC(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 FDIC의 디렉터 5명 중 3명은 연준의 최근 자본 기준 완화 방안에 반대했다.
- 작년에 처음 알려진 당초 방안은 2023년 3개 은행의 몰락으로 이어진 은행 자본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금 인상률을 19%로 요구했다.
- 그러나 연준은 은행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주요 은행의 경우 19%를 9%로 완하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 Reuters 기사

**Bloomberg: Carlyle's Thomas Says a 4.5% Fed Rate Stands to Be 'New Normal'**  
**투자자 전문가, "4.5% 연준 금리가 '뉴 노멀'이 된다"**

- 글로벌 투자사 Carlyle Group의 전략 책임자인 Jason Thomas는 미 금리가 여전히 높고, 연준이 이번 0.5%p 금리 인하 이후에도 적어도 2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러나 그는 그동안 고비용의 압력으로 정체되었던 분야들이 되살아나면서 미국 경제가 가격 압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머니 투자자들은 기준 금리 4%~4.5%를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번 수요일 금리를 4.75%~5%로 낮추었다.
- 그는 또한 현재 금리 인하 여지가 있지만, 선물과 금리 곡선 등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금리 인하 여지는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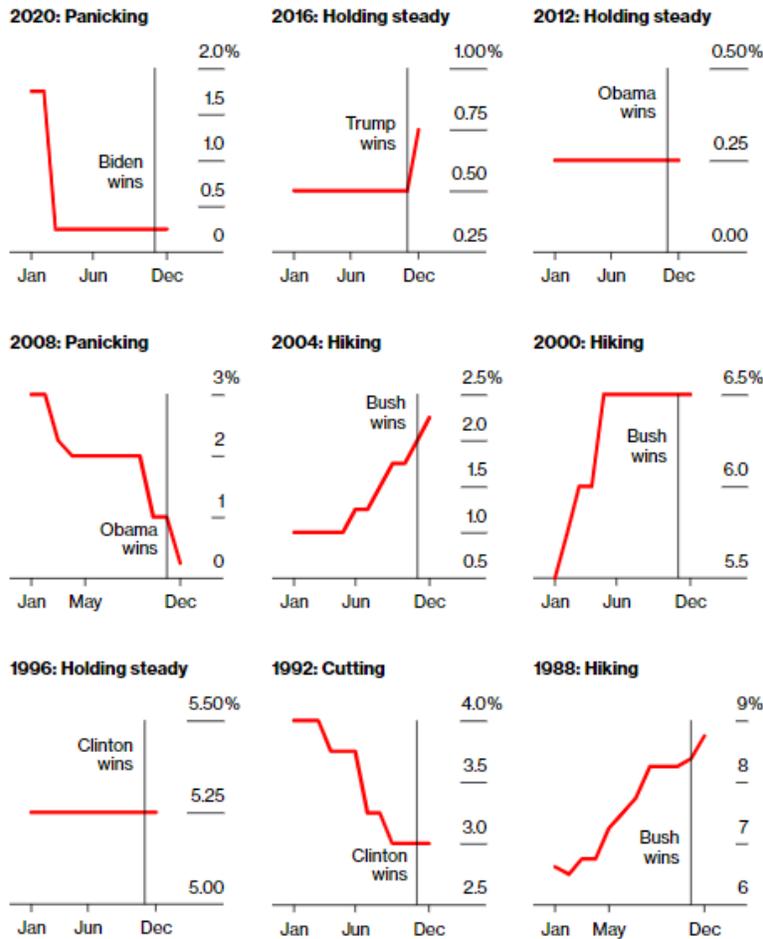
## [미국 대선]

**Bloomberg: The Fed Risks a Political Backlash by Spurring Economy Close to Election**  
**연준, 선거철에 금리 인하로 정치적 반발 직면**

-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낙관적인 경제 분위기를 살리려는 민주당 캠페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그런데 이번 조치는 양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중진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금리 인하 조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증거’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 캠페인 측은 선거직 정치인들이 금융 정책과 관련해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What Was the Fed Doing in Past Election Years?

Monthly federal funds rate



Source: Federal Reserve

Bloomberg 기사

[뉴욕시]

## Bloomberg: NYC Commuter Nightmare Looms as UN Converges With Train Mess

## UN 총회로 뉴욕 출퇴근 '악몽' 다가온다

- 매년 가을 UN 총회가 맨해튼에서 열리면 도로가 폐쇄되고 경찰 호위 속에 교통이 혼잡해진다. 이번엔 특히 출퇴근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차량 운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달 교량과 터널을 통과한 자동차, 버스, 트럭, 오토바이 수는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증가한 2,500만대를 기록했다.
- 뉴욕시는 지난 UN 총회 동안 미드타운 평균 차량 속도가 시속 4마일 미만이었다는 점을 들어 다음 주 내내 “교통 체증 경보의 날”을 선포했다. 뉴욕시는 교통 혼잡을 경고하면서 자동차 대신 지하철, 버스, 자전거, 도보를 이용할 것을 충고했다.
- 한편 New Jersey Transit와 Amtrack은 요금 인상, 투자 부족, 노후화된 인프라로 비판받고 있다. 100년이 넘는 뉴욕 지하철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리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Bloomberg 기사

### [에너지]

#### **Bloomberg: Biden Awards \$3 Billion to Boost Domestic Battery Production**

#### **바이든, 배터리 생산 확대에 30억 달러 투자**

- 바이든 행정부가 고급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3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에너지부는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주요 광물 처리, 부품과 배터리 생산, 재료 재활용을 위한 시설 건설 등에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배터리는 전기차는 물론 전력망에서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배터리는 2030년까지 모든 신규 경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로 바꾸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 요소이다.
- 에너지부는 제조 및 에너지 공급망 사무국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부는 리튬 배터리 시장이 10년 내로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내 투자가 필수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중국 경제]

#### **Bloomberg: China Keeps 2024 Fuel Export Quota Level Similar to Last Year**

#### **중국, 연료 수출 쿼터 작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중국이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보이는 연료 수출 쿼터를 발표했다.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정유업체의 활동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인다.
- 컨설팅 업체 JLC와 Mysteel OilChem에 따르면 7개의 정유업체와 트레이더가 800만톤의 휘발유, 디젤, 항공유 수출 허가를 받았다. 올해 총수출 쿼터는 4100만톤으로, 작년 4000만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 이번 쿼터는 중국 정부가 배출량을 줄이고 정유 산업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디젤 생산 마진이 글로벌 수요 약화로 떨어지고, 중국 휘발유 수출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 Bloomberg 기사

### TheEconomist: Chinese overcapacity is crushing the global steel industry

#### 중국 과잉 생산, 글로벌 철강 산업 흔들어

- 중국은 매년 많은 철강을 생산한다. 최근 중국 금속 수출량이 증가해 2023년에는 전년보다 35% 증가한 9천만톤을 수출했다. 금문교 천 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국 철강업체들이 헐값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 그 결과 중국산 철강에 무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달 캐나다는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부유한 서방국 말고 개발도상국도 중국의 철강 덤핑에 불만이 많다. 인도는 이번 달 중국산 철강에 최대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중국 정부는 오래된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제철소 승인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결국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해결될 문제다. 일부 중국 철강업체는 해외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침체된 중국 부동산 부문에서 전기차 같은 제조업체로 매출을 전환한 업체들도 늘고 있다.

#### TheEconomist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Amazon Is Trying to Kill the Meeting Before the Meeting 아마존, '회의를 위한 회의 없앤다'

- 아마존 CEO Andy Jassy는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를 위한 회의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들은 불필요한 모임으로 연간 약 1억달러를 낭비하고 있다. 경영진들은 이런 모임의 절반을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경영 전문가들은 사전 미팅에 장단점이 있다고 말한다. Brandeis 국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 Andy Molinsky는 “사전 미팅은 시간을 잡아먹고 배타

적일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적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연구 및 자문 회사 Management Lab의 공동 설립자 Gary Hamel은 “다른 CEO들도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관료주의는 사고방식의 문제다. 아마존에 변화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GM’s Cruise to Resume Robotaxi Testing in California This Fall**

#### **GM 크루즈, 올가을 로보택시 테스트 재개**

- 제너럴 모터스(GM) 자율주행차 부문인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올가을 캘리포니아에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GM 크루즈는 지난 10월 보행자 사고로 면허가 정지됐었다.
- 이번엔 최대 5대의 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소규모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피닉스, 댈러스, 휴스턴에서도 차량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몇 달 안에 완전 무인 차량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 GM은 6월 크루즈에 8억5천만달러를 지원했으며, 2025년 1분기까지 추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 Bloomberg 기사

### **WSJ: FedEx Cuts Full-Year Outlook After Posting Lower Profit, Revenue** **FedEx, 연간 기업 전망 하향 조정**

- FedEx가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미국 국내 소포 시장의 예상보다 약한 수요로 회계연도 1분기 수익과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FedEx는 6월 1일 FedEx Ground와 FedEx Service를 합병해 FedEx Express를 설립했다. 하지만 미국 국내 특급 택배량 감소, 인건비와 운송요금 증가 등의 이유로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FedEx Freight도 특급 택배량 감소와 배송당 중량 감소로 실적이 떨어졌다.
- 최고 재무 책임자 John Dietrich는 최근 가격 조치로 수요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고 경영자 Raj Subramaniam은 네트워크 혁신, 효율성 개선,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WSJ 기사

## CNBC: UAW warns of potential strikes at Ford, Stellantis a year after unprecedented work stoppages

### 연방 자동차 노조, 포드와 Stellantis에서 파업 예고

- 연방 자동차 노조(United Auto Workers, UAW)가 수요일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공장에서 파업 시한을 발표했다. 파업 시한은 9월 25일 오후 11시 59분이다. 그 전날인 화요일에는 노조 책임자 Shawn Fain이 Stellantis 공장에서의 파업 투표 계획을 발표했었다.
- Fain은 Stellantis가 제품 생산 감소, 해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 공장에서 물건 생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월요일 Stellantis를 상대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에 부당노동 행위 클레임을 제출했다.
- Stellantis는 파업이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Fain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포드는 목요일 노조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CNBC 기사

#### [보고서]

### "고맙다 美빅컷" 세계증시 동반 환호렐리...금·비트코인도 강세 美 다우·S&P 500 사상 최고 마감...빅테크가 지수 견인 비트코인 6만 3천 달러 넘어서...'중동 긴장' 국제유가도 1% 올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을 단행한 가운데, 19일(이하 현지시간)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아시아·유럽에 이어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상승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63,000 달러선을 회복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